

2009~2019 대전 민원을 분석한다

# “누가,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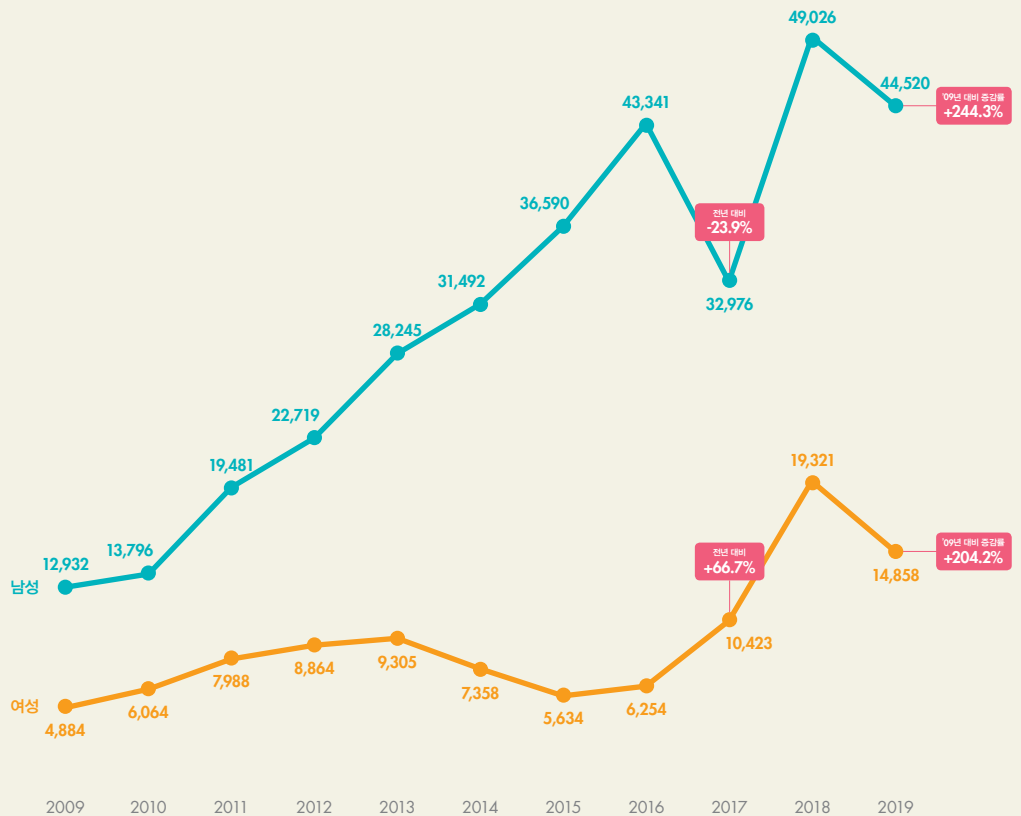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지역별, 성별, 연령별, 분야별 등으로 나누어 민원 동향을 살펴볼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민원의 흐름을 살펴보면 국민이 어떤 부분에서 불편해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더 편리해질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민원 빅데이터 분석은 국민의 소리를 듣는 중요한 정보다(국민권익위원회 Blog, 2018.5.22, ‘빅데이터로 보는 민원과 정책 개선’). 그렇다면 대전의 민원 데이터의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자.

## 새 정부 출범된 2017년 대전 여성들의 민원건수 증가폭 커, 전년 대비 66.7%↑

대전에 사는 여성과 남성들이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건수의 변화를 보면, 여성은 2009년 4,884건에서 꾸준히 증가하다 2014년과 2015년 감소했으나 2016년부터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2019년(11월 12일 기준) 14,858건으로 10년 전보다 204.2% 증가했다. 남성은 2009년 12,932건에서 2016년까지 계속 늘어나다 2017년 주춤했으나,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2019년 11월 12일 현재 44,520건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244.3%가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의 민원건수와 증가폭이 크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새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여성은 전년 대비 66.7%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남성은 23.9%의 감소율을 보였다는 점이다. 대전의 5개 자치구별 민원건수를 살펴보면, 유성구가 5개 자치구 중에서 여성(‘09년 대비 +386.3%), 남성(‘09년 대비 +383.2%) 모두 10년 전과 비교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른 자치구와 달리 여성의 증가폭이 남성보다 컸다.

대전 민원건수 추이

단위 : 건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발행인 박재욱  
편집인 주혜잔  
디자인 디자안스튜디오203 대전  
발행일 2019. 11. 30.

\*2019년 자료는 11월 12일 기준임  
\*지역별 민원건수는 민원인의 주소 기준임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맞춤형 통계 검색 결과(bigdata.epeople.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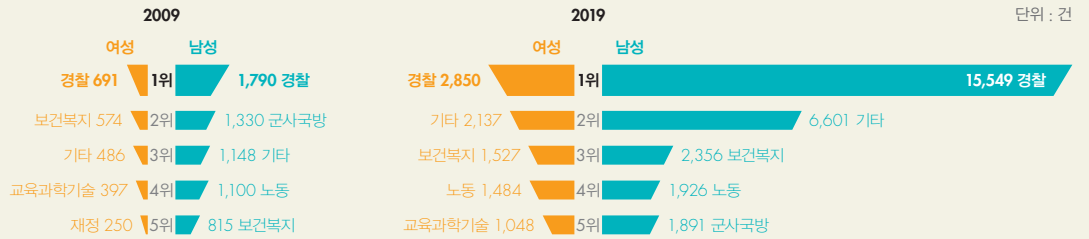
## 대전시민들은 어떤 분야의 민원을 가장 많이 제기했을까?

\*2019년 자료는 11월 12일 기준임  
 \*국민권익위원회는 25개 민원 분야는 정부 기능분류체계(BRM)를 참고해 구성되어 있다고 밝힘  
 \*25개 민원 분야: 경찰, 안전행정, 인사행정, 교육·과학기술,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노동, 환경, 군사·국방, 보훈, 농림·축산, 해양수산, 재정, 세무, 산업자원, 방송통신, 주택, 건축, 도시, 도로, 수자원, 교통, 외무통일, 민사·법무, 기타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맞춤형 통계 검색 결과 (bigdata.epeople.go.kr)

2009년과 2019년, 대전시민들이 가장 많이 민원을 제기한 상위 5개 분야를 성별로 비교해보자.

### 대전 민원분야 TOP 5

2009년 대전에 사는 여성이 가장 많은 민원을 낸 분야는 '경찰'(691건)이었으며, 이어서 '보건복지', '기타', '교육과학기술', '재정' 순으로 나타났고, 2019년에는 '경찰'(2,850건, '09년 대비 +312.4%), '기타', '보건복지', '노동', '교육과학기술' 순이었다. 2009년과 2019년 대전시 남성들이 많이 제기한 분야 1위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경찰'('09년 대비 '19년 +768.7%)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남성들의 2009년 '보건복지' 분야 민원이 815건에서 2019년 2,356건으로 증가율(+189.1%)이 '경찰' 다음으로 높았다.



## '경찰', '보건복지', '노동' 분야의 민원에서 많이 언급된 주요 단어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대전시 여성과 남성이 공통적으로 많은 민원을 제기한 '경찰', '보건복지', '노동' 분야에서 언급 횟수가 많았던 주요 단어(Keyword)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도별 상위 10개 주요 단어는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이들을 재분류하여 10년간 누적된 민원의 주요 내용을 다시 정리했다. 동일한 주요 단어는 누적 합계를 산출했으며, 동일하지 않은 주요 단어는 단어와 건수를 그대로 기재했다. 주요 단어를 대상으로 공통된 주제를 설정하고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쳐 키워드 맵(Keyword Map)으로 구성했다. 아래의 키워드 맵(Keyword Map)은 각 분야별 상위 5개 주제를 선정해 시각화한 결과이다.

### 대전 '경찰분야' 민원 주요 단어(2009~2019)

'경찰' 분야 민원에서는 주차 위반, 불법 주차 등 주정차를 주제로 한 주요 단어(22,153건) 빈도가 가장 높았다.



### 대전 '노동분야' 민원 주요 단어(2009~2019)

'노동' 분야 민원에서는 '실업급여' 관련 주요 단어(976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자료는 11월 12일 기준임  
 \*주요 단어(Keyword) 건수는 민원 내용 중 언급된 주요 단어의 노출빈도를 의미함  
 \*원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내부 자료, 『대전 지역 연도별(2009~2019)·민원분야별 키워드 TOP 10』  
 \*원자료를 토대로 키워드 맵(Keyword Map) 구성을 위해 주제 키워드를 중심으로 재가공함

### 대전 '보건 분야' 민원 주요 단어(2009~2019)

'보건복지' 분야 주요 단어 분류는 보건과 복지로 나누어 구성했다. '보건' 분야에서는 건강기능 식품, 식품 위생법 등 '식품' 관련 단어가 9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단위 : 건



### 대전 '복지 분야' 민원 주요 단어(2009~2019)

'복지' 분야 민원에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주요 단어(7,245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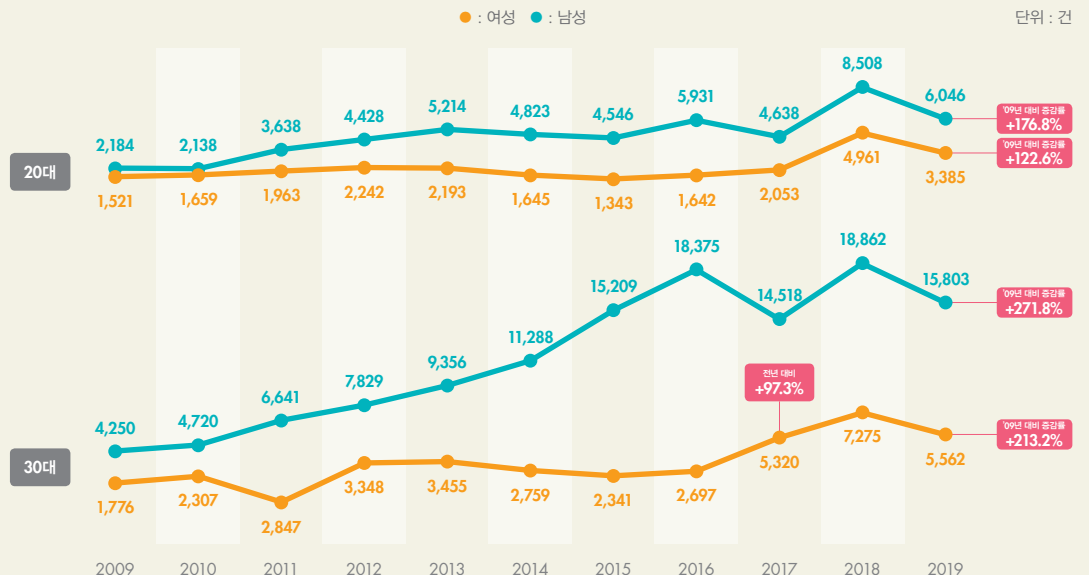
\*2019년 자료는 11월 12일 기준임  
\*주요 단어(Keyword) 건수는 민원 내용 중 언급된 주요 단어의 노출빈도를 의미함  
\*원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내부 자료, 『대전 지역 연도별(2009~2019)·민원분야별 키워드 TOP 10』  
\*원자료를 토대로 키워드 맵(Keyword Map) 구성을 위해 주제 키워드를 중심으로 재가공함

### 10년 전과 비교해 20대보다 30대의 민원건수 증가율 높아

대전에 사는 20대와 30대가 제기하는 민원의 수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고, 25개 민원 분야 중 2009년과 2019년 건수가 높은 상위 5개 분야를 비교했다.

#### 대전 20·30대 민원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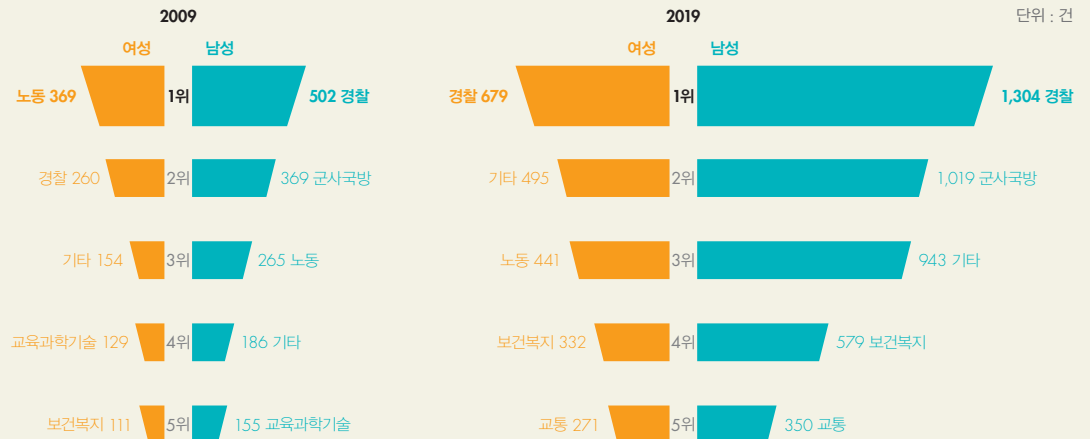
대전의 20대 여성이 제기한 민원건수는 2019년 3,385건으로 2009년과 비교해 122.6% 늘어났으며, 20대 남성도 176.8% 급증했다. 30대 여성의 민원건수는 2019년 5,562건('09년 대비 +213.2%)으로 꺾충 뛰었으며, 30대 남성도 2009년과 비교해 271.8% 증가했다. 특히 30대 여성의 민원건수는 새 정부가 출범한 2017년(전년 대비 +97.3%)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2019년 자료는 11월 12일 기준임  
\*국민권익위원회,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맞춤형 통계 검색 결과(bigdata.epeople.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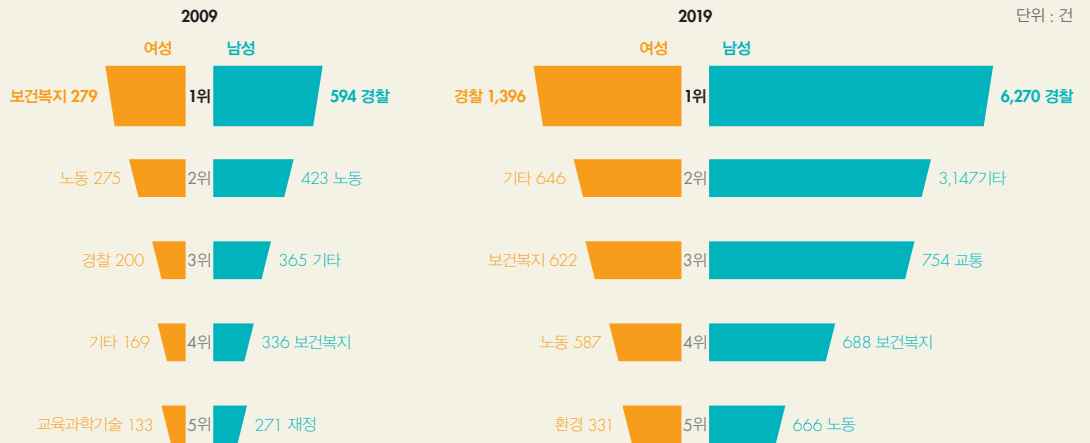
### 대전 민원분야 TOP 5-20대

2009년 대전에 사는 20대 여성이 가장 많은 민원을 낸 분야는 '노동'이었으나 2019년에는 '경찰'이 1위로 올라섰다. 20대 남성은 2009년과 2019년 모두 '경찰' 분야의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2009년과 달리 2019년에는 '보건복지' 분야가 5순위 안에 진입했다.



### 대전 민원분야 TOP 5-30대

30대 여성이 가장 많이 제기한 민원 분야를 살펴보면, 2009년 '보건복지'였으나 2019년에는 '경찰' 분야에 해당하는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남성은 '경찰' 분야의 민원이 2009년과 2019년 모두 1위였으며, 가장 큰 증가폭('09년 대비 +955.6%)을 보였다.



\*2019년 자료는 11월 12일 기준임  
\*국민권익위원회,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맞춤형 통계 검색 결과(bigdata.people.go.kr)

# 젠더 콜로키움 # 양경언 # 문학평론가 # 신동엽 문학상 # 퀴어 # 젠더\_규범성

## 제4회 젠더 콜로키움(통합 15회) 밋밋한 사고에 주름을 잡다

젠더 이슈를 연구하는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작은 공간, 젠더 콜로키움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제** 시, 퀴어하게 읽기-젠더 규범성을 허무는 문학에 대하여  
**일시** 2019년 12월 6일(금) 10시 20분  
**장소** 대전세종연구원 3층 소회의실



**발제자 양경언 문학평론가**

1985년 제주 출생. 2011년 『현대문학』 신인 추천으로 비평 활동을 시작했다. 주요 평론으로 「최근 시에 나타난 젠더 '하기(doin)'와 '허물기(undoing)'에 대하여」, 「비평이 왜 중요한가: 비평이 혁명을 의미화하는 방식」 등이 있다. 2019년 제37회 신동엽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